

학습동행 우수멘토 참여 수기②

프로그램명	학습동행
<p>① 학습동행 멘토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였나요?</p>	<p>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공부하고,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에게는 학습 노하우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3년 전에 학사경고자였고 멘토링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멘티들과 친근감을 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공부법 보다는 학사경고를 두 번이나 받고 학부수석을 했던 저의 학습 노하우에 대해 말해 주었고, 고맙게도 모든 멘티들이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시험기간에는 제가 활용했던 팁들을 말해주었고 일주일동안 그 팁대로 수업을 들어보고 모여서는 간단하게 상호점검을 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p> <p>감사하게도 교수학습혁신팀에서 다과비도 제공해주어 한달에 두 세 번씩 멘티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도 하며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p> <p>모든 멘티들이 제가 제안한대로 잘 따라와 주었고, 특히 멘티 중에 같은과에 재학생인 후배도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와는 정말 자주 붙어다니며 모르는게 있으면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제가 모르는게 있으면 그 친구에게 배우기도 하며 멘티들과는 한 학기 내내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p>
<p>② 멘티 학생들과 한 학기 동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p>	<p>지금까지는 멘토링을 받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여러모로 보람찼던 한 학기였습니다.</p> <p>멘티들을 처음 만났을 때 같은 과 후배 한명을 빼고는 전부 전공이 제각기라 멘토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되나 참 막막했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공부법이란게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될 때까지 열심히 하는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고 공부법이 있다고 해도 전공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적요될 수 있는 노하우 위주로 전수를 해주고 같이 공부를 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해준 것은 없지만 모두들 지정된 요일에 스터디에 잘 열심히 참여해 주었고 팀 내 많은 멘티들의 성적이 많이 향상되고 우수 멘티로 장학금도 받게되어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p>
<p>③ 멘토 경험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p>	<p>알고있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확실히 늘게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스터디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말을 하며 공부할 수 없었는데 이번 멘토링을 진행하며 열린 공간을 사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하다가도 전공에 관한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특히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전달하는 능력이 많이 늘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p> <p>남에게 설명할 수 없으면 제대로 아는게 아니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그동안 학교 수업을 들었을때는 누구에게 말할 세도 없이 시험기간엔 외우고 시험이 끝나고 뒤돌아서는 순간 까먹는 지식이 많아 학기가 끝나고 나면 크게</p>

	<p>남는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멘티들과 함께 공부를 하며 수업에서 들은 내용들을 설명해보려고도 하고 멘티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니 멘토링이 끝난지 2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과목에 대한 기억은 또렷하게 납니다.</p> <p>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동안 학부내에서만 생활하느라 다른 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동행 멘토 활동을 통해서 다른 전공의 친구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p>
<p>④ 멘토로서 앞으로의 새로운 다짐과 계획은 어떠한가요?</p>	<p>지난 몇 년간 학업에만 너무 매진하느라 대외활동이나 실력을 쌓기 위한 활동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학업에 비중을 좀 낮게 하고 전공 관련 대외활동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올해 내로 꼭 졸업을 하고 졸업 즉시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올해의 계획입니다.</p> <p>시간이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동행 멘토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매우 바빴지만 동행 멘토로 활동하면서 얻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멘토 활동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p>
<p>⑤ 학사경고(낮은 학업성적)으로 고심하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준다면?</p>	<p>과 후배들에게도 종종 하는 말이지만 학업은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만 강하거나 혹은 자신을 과대평가 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고 제대로 이루는 것은 하나도 없다면 학업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겠나 하는 좌절감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하더라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확실히 수행하는 것이 앞으로의 학업을 이어나가는데 자신감을 북돋워줄 것입니다.</p> <p>학과 내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선배들은 나보다 먼저 학교 생활을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선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이 높은 성적을 받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배 뿐만아니고 동기, 후배들과도 자주 교류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p>